

“잡초들도 어울려 사는 지혜 있어”

산문박의 筆

야생화연구 25년 김태정 씨

사람들은 식물에 전적으로 신세를 지고 있으면서도 식물에 대해 우월의식을 지니고 있거나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 거의 외식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물도 삶에 있어서는 사람의 삶과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함부로 짓밟고 있는 잡초들도 자기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또 어울려 사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계에는 놀라울 정도로 질서가 철저합니다. 이른 봄 큰나무 밑에 키가 10cm 미만인 제비꽃, 민들레 등이 먼저 꽃을 피웁니다. 아직 나뭇잎이 나지 전이라 마음껏 햇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꽃 알리기

키작은 꽃들이 열매를 맺을 무렵 20cm 정도의 금낭화 은방울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6월쯤 가사야 큰나무들의 잎이 무성해지기 시작하지요. 다 햇빛과 벌 나비들이 차례로 올 수

만 해도 아무도 우리 꽃에 대한 관심이 없었지요. 심지어 들과 산을 헤매다 간혹으로 풀만 찍어 한두 번이 아니고 답사나갈 땐이 모자라 사진기재들을 전담포에 맡기고 못찾아 애를 태운 적도 여러번입니다.

지난 85년 야생화 연구의 첫 결실인 <한국야생화 제집>도 어렵게 나온 책입니다. 처음 다루어진 야생화 부분의 연구라 여기저기서 화제는 되었지만 책이 잘안나가는 탓에 사무실을 쫓겨나다시피 했지요.

이제는 각 출판사에서 앞다투어 책을 내자고 할만큼 야생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지만 무엇보다 기쁜 것은 우리꽃 책이 국민 남녀노소 각층에 두루 읽히고 있는 점입니다. 달력이나 카드로도 많이 제작되어 우리 꽃들의 아름다움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 야생화 연구 25년의 보람이라면 큰 보람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꽃만 화려한줄 알고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경숙 기자

민통선등 전국 산하 살살이... 꽃사진 60만컷 보유

“탐욕으로 자연을 파괴하니 그 결과는 사람의 몫”

있게 하는 나름대로의 질서를 지키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세상은 그게 아니지요. 계단을 밟아올라가기 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좋아하고 자기 이익이 걸리는 일이면 남이야 어쩌되는 아랑곳을 안하고 짓밟지요.

최근 우리땅에서 자라는 식물 2천 2백종을 총망라한 <한국의 자생식물(전 5권)>을 썼습니다. 야생화를 사진과 더불어 속명 분포 특징 용도 번식 등 식물학적 설명과 함께 소개, 특히 식물의 전체 모습뿐 아니라 각 부위의 일 열매 등의 세부적인 사진까지 넣어 단순한 도감을 넘어 실용서로 꼭꼭 활용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꽃 백가지> (약이 되는 야생초) (쉽게 찾는 우리꽃) (휴전선의 야생화) 등 우리꽃 관련 총 29권의 책을 펴냈습니다. 다음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피는 우리꽃>을 펴낼 계획입니다.

사실 내가 야생화연구를 한답시고 들과 산을 쫓아다닐 초창기인 70년대

만 우리꽃에 관심 갖다 보면 그 아름다움과 초초함에 감쪽 놀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야생화연구소' 사무실에는 60만컷 이상의 컬러 꽃사진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민통선 북방지역자연생태조사, 섬지방탐사, 백두산야생화 학술탐사 등 국내에서 행해진 학술조사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참가한 소산입니다. 각 방송사나 신문사들 여러 곳에서 특집으로 쓰이며 꽃사진을 빌려가곤 합니다. 그때마다 내 자식을 잠깐 이나마 남의 집에 보내는 심정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이쁜 것은, 이쁜 나쁜 것, 또는 잡초나 이쁜모를 들뜰 이니 하며 분류를 하지요. 전부 인간 중심의 이기적인 분류지요. 먹고 입고 쓰고 하는 거의 모든 것이 식물에서 나옵니다. 우리 식물의 98%는 약으로 쓸 수 있습니다. 시계가 없던 예전에는 집집마다 분꽃이나 박꽃을 심어 꽃이 필 때 저녁을 지었고 꽃이란 식물에서 물감을 추출했지요. 화학물감이 들어와 대량유묘되면서 쪽이

멸종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통도사 스님이 쪽을 짚는 밭에 심어와 그 명맥을 유지시켰지요. 지금은 쪽이 많이 퍼져 그것을 천연염료로 쓰는 경우가 늘고 있어 그 스님께 고맙더려구요.

예전에는 절에서 회귀종 꽃이나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절에서 우리꽃의 전통을 보존해온 셈이지요.

“들꽃세상엔 뽕뽕이 없다”

도시에 살더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 잔디밭이나 길가 언덕, 학교 가는 길목 빈터 등지에 수없이 피고 지는 들꽃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졌으면 합니다. 산길을 거닐면 험한 바위길 가파른 벼랑 틈 어디든지 살아있는 생명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상황이 굴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생명들을 보노라면 혹시나 지금 닦친 어려운 문제 앞에서 도망갈 굴리에 몰두하고 있지않는가 자신을 반성해 봅니다.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면서 위로만 위로만 치닫기

를 위해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에 항상 불행해 하는 사람들에게 들꽃의 삶을 배우라고 감히 권유합니다.

25년간 전국산하를 뒤져온 덕분에 내 머리속엔 꽃피도가 들어 있습니다. 꽃피는 절이 되면 “어서 떠나야지” 하며 마음이 설레입니다. 그러나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지는 생태계파괴로 들꽃들이 많이 사라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인간만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출할 모르는 탐욕이 자연을 어디까지 파괴시킬지, 자연이 스스로 소생할 마지막 힘을 잃고 난 뒤 인간이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큰 고통일지...

어릴 때부터 씩이 돌고 꽃이 피고 열매맺는 과정을 보고 자라는 사람은 절대 공짜를 바라지 않고 잘난척 뽕내지 않고 자연을 마구 파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꽃세상엔 다름도 뽕뽕도 없으니까요.

환청·이명에 시달립니다

문 30대 직장인입니다. 심여년 전 어느날 집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천수경 외는 소리가 들리면서 몸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놀라고 한편 신기하게 느꼈는데 그 후로는 환청, 이명에 시달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 후 단전호흡 수련을 하면서 세칭 도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했지만 몸의 증세나 외구 심은 여전했습니다. 모르게 제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답답한 심정을 가늘 길었습니다.

(이방희·경기 의정부 가평동)

답 늘 말씀드리지만 안팎으로 다가오는 모든 경계는 다 내가 나를 성숙시키려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달리 말하면 마음공부의 재료인 셈이지요.

비유하여 컴퓨터를 봅시다. 입력된 정보는 계기를 만나면 반드시 출력이 되게 되어있지요. 더도 덜도 아니고 입력한 양만큼 맏입니다. 사람의 업적이라는 것도 그와 같아서 전자에 대한 마음먹었던 것은 단 한차례도 썩지않고 채곡채곡 쟁여져 있다가 때가 되면 술술 풀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디 밖에서 누가 그렇게 하는게 아니지요. 모든게 인과성, 영

남의 가르침이 어디 기독교, 불교로 나누는 그런 가르침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교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만물만생에 붙자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제 생명이 의지해 움직이고 삽니다. 이 생명을 떠나서라면 부처님은 어디 있고 기독교는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완성이 곧 나답이다' '자기지혜가 곧 하느님이다' '일체의 능력이 곧 한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셋, 그것도 이름입니다만 그걸 다 합쳐서 불교요, 하나로 묶어 지어하시는 분이 부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절, 네 절 따지고 싶지 않고 내 신도 네 신도를 관계치 않습니다. 생명의 이치 그대로가 佛이요,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가 佛인데 신도가 많이 올라 안을까 무슨 걱정입니까. 어디서든 가르침을 옮겨 배울 수 있다면 그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라는 한 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요 그걸 모르면서 내 의자, 네 의자를 다투어야 될 일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라면 이름에 걸리거나 속아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불자라면 절대로 타의에 이끌리거나 타력에 의지하지 말고 내 생명의 불을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교를 믿는다고도 타력에 의존하는

지 상 상 담

길 을 묻 는 이 에 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상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시고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 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미음선대 대령스님께 문 고 답을 통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계성, 유전성 등에 의한 것인데 그 원인이야 어찌 되었든 그것도 나온 자리가 있으니 그 자리에 다시 돌려 놓아야 합니다. 몸이 괴로운 것도 거기서 나온 것이고, 자꾸 영동한 생각이 드는 것도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요는 그점을 철석 같이 믿질 못하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처사님 같이 특이한 경우는 믿음이 약해서 마치 빈 집처럼 보이는 경우인데 굳은 믿음으로서, 다가오는 경계를 풍양 주인공 자리애 놓는다면 분명코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자리를 잘 관해보지 바랍니다. 실은 그런 경계 또한 본래 있지도 않은 그림자같은 것인데 거기에 집착을 하니 자꾸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주인공을 믿고 몽땅 놓아야 합니다.

기독교나 조곰도 다를 바 없게 됩니다.

물질세계 연구도 필요한지요

문 대학 신입생입니다. 불교에서는 물질 세계보다 정신세계를 더 중시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물질세계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입장에서 보아 물질세계를 연구하는 것은 무의 미할까요?

(조충현·서울대 지연대)

답 아니지요. 정신과 물질이 둘이 아니지요 않습니까? 그러나 연구할 수 있지요. 정신이 없다면 물질이 없고 물질이 없다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둘을 다 알아야 온전하다고 하지요. 왜냐하면 전체론리학이라 할 때 전파방원경으로 보는데는 한계가 있는데 마음의 눈으로 보면 한계가 없지요. 그렇게 한계없는 도리를 알아야 전체를 탐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한계없는 도리를 터득할 능력이 있으니 전체를 아는 연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과학의 생활화 생활의 과학화인 셈입니다. 그러나 물질과 정신을 따로 떼어놓고 물질을 물질로만 본다면 우리 연구능력이 뛰어난다고 해도 결국은 반쪽 50%밖에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스스로 한계를 그어 놓고서 어떻게 전체를 탐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쪽만 아는 물질세계의 한계를 뛰어넘어 온전히 터득하려면 마음도리를 깨우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현대의 과학이 물질과학이 아니라 심성과 학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문 타종교의 포교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개신교의 근래 신도수가 크게 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각자 불법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겠지만 그에 앞서 신도 수를 늘리는 포교업무가 더 급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시지요.

(강진구·울산시 동구 전하동)

답 일리있는 말씀입니다만 불교도 기독교 다 하는 그것은 다 상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는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주체를 똑바로 보고 똑바로 믿어라, 절대로 타력에 의지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진리엔 본래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처

현대불교신문서 3

능가스님의 알기쉬운 법화경강설

佛能疏撰 / 정가 4,000원

능가(能嘉)스님이 대승경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법화경을 현대인이 알기 쉽게 풀어쓴 역서! 노스님의 지혜와 애정이 배어있는 쉬운 법화경.

佛 書 專 門 出 版 大興企劃

서울·중로구 수송동 46-18 수성B/D 101호 전화 (02)738-6270, 735-7202 FAX (02)733-1016

능가스님의 법화경 강의 안내

배월 (양력) 11일 오전11시~12시까지 법어사 내원암에서 능가스님의 법화경 강의가 열립니다. 연락처 (051)508-5165

현대불교신문서

1. 문수사리소설 마하비바리밀경 **李東來역·佛能疏撰** 부처님과 문수보살이 직접 설한 경으로 일행삼매(一行三昧)를 통한 진리의 도달을 강조한 지혜의 보고 **값 / 3,000원**
2. 대장부론 **李東來역·佛能疏撰** 물질에 찌든 현대인에게 보시를 통한 자아의 발견과 보다 나은 인간세상 건설을 위한 방향을 명쾌하게 제시 **값 / 3,000원**
3. 법화경 강설 **佛能疏撰**
4. 육묘법문 **李東來역·佛能疏撰** 옛 승려가 빨리 깨달음을 얻으려는 중생에게 부처님의 행적을 통해 깨달음을 이르는 길을 서술한 지혜의 샘 **값 / 3,000원**
5. 금강경 육조해 **근 간**
6. 반야경 **근 간**

* 대흥기획의 현대불교 신문서는 알찬 내용을 담아 계속 간행됩니다.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항비 를 사용 해 보 세 요 !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딱딱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있다. ()
18. 당노와 감상선으로 고통받는다. ()

2가지 이상 관련되는 문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80) 200-4545, 02) 755-9821